

KIA 네일 '등판이 곧 승리' 팀에 첫 연승 선사

올해 4경기 등판 팀 성적 3승 1패
지난시즌 맹활약 연봉 2.5배 인상
불펜진 역전 허용에 긴 이닝 소화
KBO 6번째 36이닝 무실점 대기록

KIA 타이거즈 1선발 제임스 네일은 개막 이후 총 4경기에 선발 등판해 팀 성적은 3승 1패를 기록했다. 한 번의 패배의 경우 네일은 6이닝동안 퀄리티스타트로 호투했지만 불펜에서 역전당했다. 롯데전에 다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네일은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는 투구로 팀에 승리를 선물하며 시즌 첫 연승과 워닝시리즈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KBO 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을 보낸 네일은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49.1이닝 동안 12승 5패 138탈삼진으로 활약했다. 특히 평균자책 2.53으로 리그 1위에 오른 네일은 한국시리즈에서도 2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10.2이닝 동안

1승 13탈삼진 평균자책 2.53을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네일의 뛰어난 활약에 KIA도 첫 해 총액 70만 달러에서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며 통 큰 투자를 결심했고 지난해 11월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연봉 120만·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계약 직후 자신을 믿고 좋은 제안을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네일이 시즌 초부터 팀에게 승리를 안기고 있다.

네일의 시즌 첫 출전은 지난달 22일 NC를 상대로 한 개막전이였다. 이날 네일은 18명의 타자를 상대로 5이닝 동안 2피안타 1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보였다. 경기는 뒤늦게 불붙은 타선으로 인해 8회에서야 역전할 수 있었고 승리 투수는 전상현이 가져갔지만, 경기 전반 NC를 틀어막은 것은 네일이었다.

두 번째 등판인 지난달 28일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에서 네일은 21명의 타자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2사사구 5탈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불펜진이 역전 이후 네일은 긴 이닝을 소화하며 불펜 부담을 줄여주는 투구를 펼쳤다. 지난 3

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무려 7이닝동안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뒷문도 스스로 닫은 것이다. 특히 4회초를 제외하곤 삼성의 타자들에게 3루 베이스를 밟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신들린 투구를 선보였고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내려가기 직전 가장 많이 흔들리는 6회와 7회에서도 삼자범퇴를 만들어 냈다.

9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네일은 7이닝 동안 6피안타 2사사구 6탈삼진을 비롯해 1실점만을 허용하면서 두 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플러스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KIA는 전날에 이어 롯데와의 1·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시즌 첫 연승과 워닝시리즈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심지어 이날 네일의 1실점은 36이닝 만이자 지난해 8월 13일 이후 첫 실점으로 이는 선동열 전 감독의 37이닝 무실점에 이은 KBO 6번째 기록이다.

네일의 위력적인 호투가 빛을 발하면서 올 시즌 KIA를 또 다시 우승권까지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국 야구, 내년 WBC 일본·대만과 같은 조 편성

세계랭킹 1·2위와 묶여 가시밭길
3월부터 일본 도쿄돔서 조별리그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대만 등과 같은 C조에 편성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0일(한국 시간) 발표된 2026년 WBC 조 편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호주, 체코, 대만과 함께 C조에 배정됐다.

앞서 2월에 열린 WBC 예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세계 랭킹 2위 대만과 1위인 일본이 같은 조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6위에 머물러 있다.

A조는 푸에르토리코·쿠바·캐나다·파나마·콜롬비아로 구성됐고 B조는 미국·멕시코·이탈리아·영국·브라질, D조는 베

네수엘라·도미니카공화국·네덜란드·이스라엘·니카라과로 결정됐다.

총 16개국이 치르는 WBC는 각 조의 1·2위 팀이 8강에 올라가며 C조는 2026년 3월 5일부터 6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조별리그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한국이 8강에 오르게 된다면 2026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D조를 상대하게 된다. 조 1위가 되면 D조 2위와 준준결승을, 2위로 올라갈 경우 D조 1위와 4강 진출을 두고 경쟁한다. 8강 토너먼트 4경기 중 2경기는 휴스턴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마이애미 론디노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6회째 열리는 WBC에서 한국은 초대 대회였던 2006년에 3위, 2009년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대회에서 모두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FC의 강희수가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강희수, 첫 선발 출전경기서 데뷔골

금호고 출신...9일 대구전 선제골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성장"

매 시즌 능력있고 유망한 선수들을 배출해 내고 있는 광주FC에 금호고 출신 강희수가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생 미드필더인 강희수는 광주 U18 금호고를 거쳐 선문대학교에 진학했고 대학 축구 4관왕을 휩쓴 뒤 광주FC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뛰어난 발제주와 준수한 스피드를 자랑하며 공수 전환이 유연한 현대 축구에 최적화된 미드필더다. 또 양발을 활용한 빌드업이 가능하고 투지 가득한 넓은 활동량을 선보일 뿐 아니라 2선과 3선을 때에 맞게 끌고루 소화할

줄 아는 축구 지능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프로 첫 선발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강희수는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11분 헤이스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 공은 수비의 발을 맞고 굴절되며 골대를 흔들었다.

산발로 첫 출전한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마철준 수석코치가 경기를 앞두고 해준 조언 덕분이었다. 몸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큰 긴장 없이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강희수에게 경기 시작 직전 마 코치는 '무조건 골대앞으로 들어가라. 오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이다' 고 조언을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강희수는 계속 마 코치의 조언을 되새겼고 끝내 득점으로 이를 수 있었다.

이날 강희수의 선제골로 경기 분위기를 가져온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 추가골을 터뜨리며 2-1로 승리했다.

강희수는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매번 선발로 출전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며 "대학교에 다닐 때도 못 넣었던 골을 프로에서 해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보성서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11~17일 다향체육관...1000명 참가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11~17일 7일간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치열한 씨름 열전을 벌인다.

경기는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교부 단체전과 개인전 7체급(경장, 소장, 청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급), 여자부 개인전 3체급(매화, 국화, 무궁화급)으로 각각 펼쳐진다.

전 종별 예선전-8강까지는 단판제로 하며, 준결승 및 결승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된다. 또 모든 경기는 맞붙기(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살바티비'에서 시청할 수 있다.



14일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결승, 15일 중학부 단체전 준결승~결승, 16일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결승은 MBC PLUS(MBC SPORTS+)에서도 생중계된다.

최동환 기자